

# 전남 지역 어린이 학교 가는 길 '위험천만'

### 어린이보호구역 보·차도 미분리 학교 1040곳 중 120곳 '전국 최다' 소방차 학교 도착시간 6.85분 '가장 오래 걸려'...광주는 '6.44분'

전남 지역이 고품질로 아이 웃음소리조차 듣기 어려운데 학교 다니는 길조차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학교안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보·차도를 분리하지 않은 학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학교는 전체 1040개교 중 120개교(1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차도 미분리 학교는 학교

출입문을 도로와 분리하거나 차량출입 금지, 차량출입문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등 방법으로 학생들이 걷는 보도와 차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학교를 가리킨다.

전남에서 물리적으로 보·차도를 분리하지 않고 차선, 임시시설 등으로 임시 분리한 비율은 20.5%(213개교)다. 전남 학교 중 32.0%(333개교)의 학생들은 보·차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버젓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등하교길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

의 경우 522개교 중 40개교(7.7%)가 보·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고 있으며, 광주 103개교(19.7%)는 임시 시설, 차선으로만 보·차도를 분리 조치해 27.4%(143개교)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전남 학교들은 교통 시설물 설치도 미흡한 상태였다.

전남 학교 중 40.1%(417개교)는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교내 교통안전을 위한 서행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33.4%(347개교)에 달했다. 서행표지판 미설치율은 전남이 전북(35.6%)에 이어 전국 2위였다.

광주는 승·하차 공간 미설치율이 55.7%(291개교)로 대구(56.3%)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광주의 서행표지판 미설치율은 18.4%(96개교)였다.

전남 지역 학생들은 소방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발한 차량이 학교로 도착하기 위한 평균 차량 도착 시간이 6.85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손꼽혔다. 광주는 6.4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로가 확보돼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전남은 총 6개교가 화재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5개교(8.2%)는 소방차가 진입하더라도 일부 화재에만 대응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에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남 학교 중에는 섬 지역 학교로 섬 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섬 내 소방차가 없는 경우

가 포함되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을호 의원은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통학로는 일상적 사고를 언제든지 참사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소인데, 지자체·교육당국·관련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관 행위로 정작 학교 주변 외부 통학로는 운석열 정권 이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기록된 최근 4년간 전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13건 2023년 14건, 2024년 9건 등이다. 광주는 2021년 23건, 2022년 14건, 2023년 15건, 2024년 17건 등 사고가 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온열질환 예방 현장 순회 광주시 북구청 중대재해예방팀 직원들이 최근 실시한 온열질환 예방 현장 순회점검에서 야외 작업 중인 공원노동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등 기본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65세 이상 8명 중 1명 '기초수급자'

### 지난해 수급률 7.1% '전국 2위'

광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8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수급률(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7.1%로, 부산(7.4%)에 이어 전국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수급률은 6.2%였다.

광주 수급자는 총 10만 201명으로, 일반수급자 9만 7765명, 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243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광주 65세 이상 일반수급자 수는 3만 1820명으로, 전체 일반수급자의 32.5%를 차지

할뿐 아니라 광주 전체 65세 이상 인구 26만 2147명의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노인 수급자 중 1만 1707명은 남자, 2만 113명은 여자였다.

전남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10만 5397명, 시설수급자 5464명으로 총 11만 861명이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4만 8664명으로, 일반수급자의 46.1%이자 전남 전체 65세 이상 인구 48만 9199명의 9.9%에 해당했다. 각각 남자 1만 6601명, 여자 3만 2063명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수급자 중 노인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5.4%, 2021년 37.6%, 2022년 39.7%, 2023년 41.3%, 2024년 42.8% 등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최근 5년 사이에는 7.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갑질 호소 사망' 대학원생 휴대폰 열렸다

### 포렌식 마쳐...통화 내역·녹음 등 180GB 분량 자료 확보

경찰이 전남대 대학원생이 갑질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광주일보 7월 23일 7면)과 관련, 유족이 제출한 휴대폰 등에서 180GB(기가바이트) 분량의 통화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대학원생 A(24)씨의 휴대폰, 노트북, 연구실 태블릿 PC 등을 포렌식 검사를 거쳐 통화 내역, 녹음 등 총 180GB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 중 A씨가 갑질, 업무과중 등 피해

를 호소했던 점과 연관된 자료를 선별해 구체적 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도 사건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으로 검토를 거쳐 향후 징계 절차 등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도교수와 박사(연구교수)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받고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후 지난달 13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생활관 옥상에서 추락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 폭염이 폭우 부른다...중간 없는 '극한 날씨'

### 기상청 '아열대 기후처럼 상황 반복'...이번 주 최대 200mm 비 예보

지난달에 이어 8월 들어서도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단적인 기후가 반복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상청은 기후 변화 등으로 극한의 폭염이 지속될수록, 극한의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이번 비는 남쪽 바다에서 유입된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건조한 티베트고기압과 강하게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특히 밤에는 기압계 변화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

입되다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 강한 비구름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특히 최근의 심한 폭염이 극한 호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폭염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주변에 대기 중 수증기가 많이 차 있다 보니 조그만한 계기가 있어도 바로 많은 양의 강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이같은 현상은 오는 6~7일에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쪽에서 2차로 남하하면서 좁고 긴 선형의 강수띠를 형성하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오는 5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는 80~150mm, 전남해안과 지리산부근에는 2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6~7일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열대 기후처럼 폭염이 심해질수록, 폭우도 거세지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가 그치고 나면 또 폭염이 나타나는 여름철 날씨가 나타나면서 극한 기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b>금융감독원 콜센터</b>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b>금융감독원 홈페이지</b>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b>각 보험회사 대표번호</b></p> <p><b>각 보험회사 홈페이지</b>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